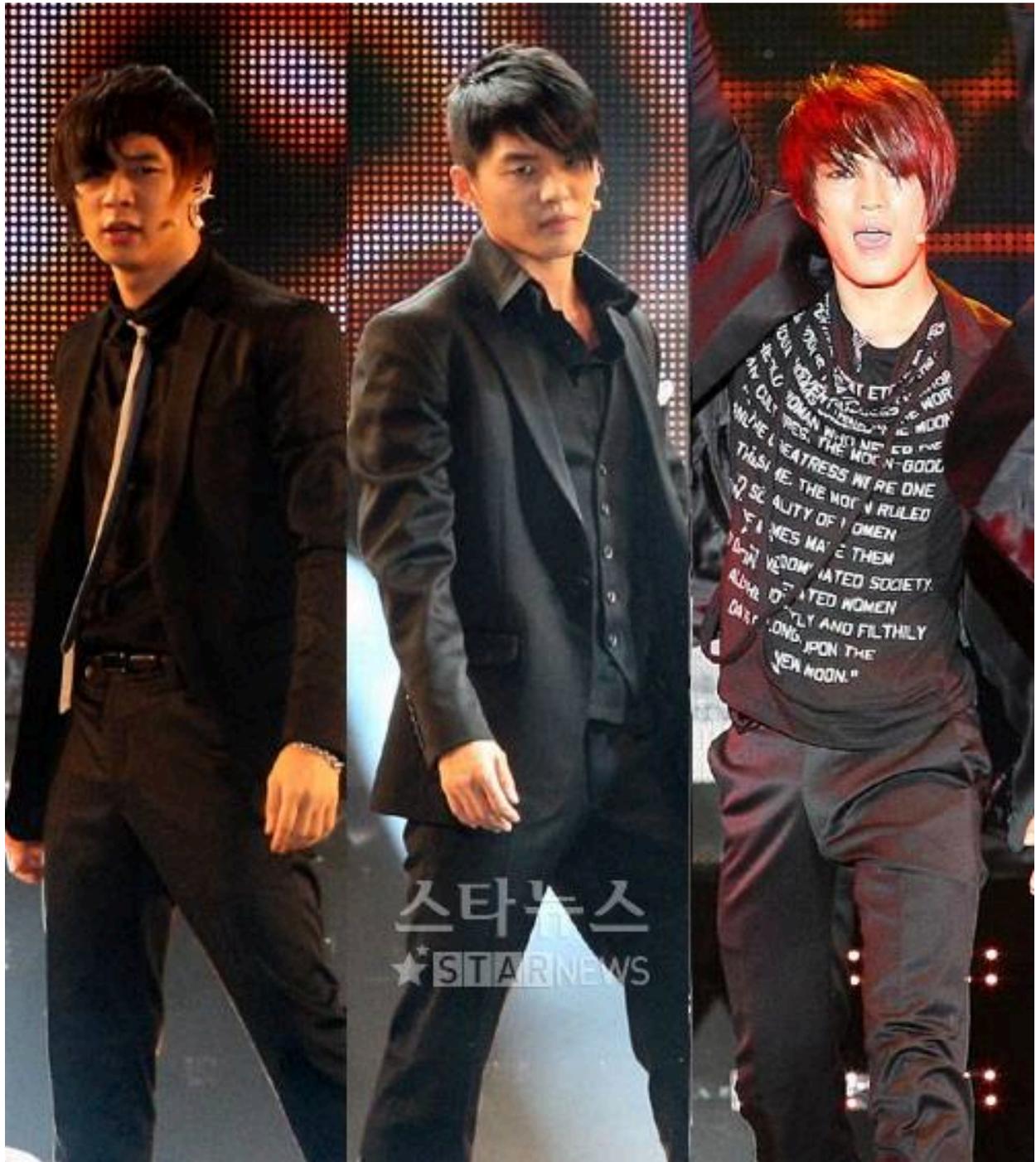


동방신기 3인 vs SM, '탈퇴-해체' 無언급엔 같은입장 왜?

길혜성 · 입력 2009. 8. 2. 15:02 · 수정 2009. 8. 2. 15:38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길혜성 기자]



동방신기의 믹키유천,시아준수,영웅재중(왼쪽부터)

5인조 인기 아이돌그룹 동방신기 멤버 중 영웅재중 믹키유천 시아준수 등 3명이 SM엔터테인먼트와 갈등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측 모두 '해체' 및 '탈퇴'란 단어는 아예 입 밖으로 꺼내지 않고 있어 눈길을 끈다.

영웅재중 믹키유천 시아준수 등 3명은 지난 7월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SM에 전속 계약을 풀어달라는 뜻을 공식적으로 드러낸 셈이다. 하지만 동료 멤버인 유노윤호와 최강창민은 이번 소송에 동참하지 않았으며, 향후에도 SM과 함께 할 예정이다.

이렇듯 동방신기 멤버들이 각기 다른 입장을 취한 것은 물론, 일부 멤버가 데뷔 때부터 함께 했던 SM과 갈등을 보임에 따라 그룹 존속 자체까지도 불투명해졌다는 평가다.

그러나 이 와중에서도 2일 현재까지 SM과 영웅재중 믹키유천 시아준수 등 3명 측은 '해체' 및 '탈퇴'란 단어의 사용은 극도로 자제하고 있다. 그룹 존속 자체가 위기에 봉착했지만, 해체는 양측 모두에게 물심양면에서 뼈아픈 상처를 남긴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란 평가다.

SM은 1일 새벽 1시께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가처분 신청에 대해 당사는 동방신기가 개인 혹은 일개 기업만이 아닌 국가 및 아시아를 대표하는 그룹이기 때문에, 동방신기의 활동은 지속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또한 당사는 화장품 회사와 관련해 발생한 이번 문제에 대해 조속히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영웅재중 믹키유천 시아준수의 이번 소송을 진행한 세종 측 역시 "이번 소송은 3명의 멤버와 SM의 문제로 인해 발생한 것이지, 동방신기 멤버들 사이의 문제 때문이 아니다"라는 입장 속에 '해체' 및 '탈퇴'란 단어는 쓰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가요계에서는 전혀 다른 2가지 전망을 내놓고 있다. 첫 번째는 양측 모두 '해체' 및 '탈퇴'란 단어를 쓰지 않는 만큼 영웅재중 믹키유천 시아준수 등이 자신들의 벌이고 있는 화장품 사업 등 여러 부분에서 SM과 극적 화해를 이뤄, 지금까지처럼 동방신기가 SM과 함께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여기에는 영웅재중 믹키유천 시아준수 등이 SM과 갈등이 불거진 이후에도, 유노윤호 및 최강창민과 함께 동방신기의 예정된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는 점도 힘을 실고 있다.

영웅재중 믹키유천 시아준수는 지난 1일 일본 구마모토에서 열린 '에이-네이션 09'(A-nation09)에 유노윤호 최강창민 등과 함께 출연했다. 또한 오는 16일 서울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개최될 'SM타운 라이브 09' 콘서트에도 예정대로 나설 것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가요계의 또 다른 일각에서는 양측이 '탈퇴 및 해체'란 단어를 사용하는 않는 것은 향후 전개될 대립과 관련, 여론의 향방을 자신들 쪽으로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하나의 방편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영웅재중 믹키유천 시아준수 등 3명이 '해체' 및 '탈퇴'란 최악의 경우까지도 감안했기에, 오랜 기간 함께 한 SM을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란 초강수를 뒀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들 3명의 멤버와 이번 사안과 관련, 최근까지 상당 기간 이야기를 나눈 SM도 이러한 사실을 모를 리 없다는 게 가요계 일각의 평가다. 그렇기에 SM도 '해체' 및 '탈퇴'란 단어는 사용하지 않지만, 향후 벌어질 여러 상황들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실적으로 영웅재중 믹키유천 시아준수가 SM과 극적 화해를 이루고 SM에 복귀하지 않는 이상, 동방신기의 존속은 어렵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유노윤호와 최강창민이 이미 SM과 함께 뜻을 밝힌데다 동방신기란 팀에 대한 여러 권한이 SM에 있기 때문이다.

영웅재중 믹키유천 시아준수 등은 3일 세종 측을 통해 SM에 대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과 관련한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관련기사]☞ 동방신기 3人 측-SM, "귀국여부 확인해 줄 수 없다"☞ 동방신기, 6일 日불꽃놀이-16일 SM콘서트 연속 참여☞ 동방신기, '갈등 불구' 日공연 호쾌한 무대☞ 日에이벡스 "동방신기, 향후활동 변경無..폐끼쳐 죄송"

모바일로 보는 스타뉴스 "372 누르고 NATE/magic@ez-i"

comet@머니투데이가 만드는 리얼타임 연예뉴스제보 및 보도자료 star@mtstarnews.com < 저작권자 © '리얼타임 연예속보,스타의 모든 것'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길혜성

스타뉴스 & starnewskore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